[IPO Note] 세종메디칼(258830.KQ)

기업개요

세종메디칼은 복강경 수술용 기구를 포함한 의료기기 생산업체로 국내 최초 복강경 수술기구 국산화에 성공하며 시장을 이끌고 있다. 국내는 동사를 포함해 약 38개 업체가 경쟁하고 있으며, 세종메디칼의 일회용 투관침 시장점유율은 20%, 적출 주머니는 90%를 차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제품별 매출비중은 Trocar(일회용 투관침) 49%, Lab bag(일회용 적출 주머니) 29%, Lab Loop(일회용 의료용 봉합기) 9%, 기타 13% 이다.

비즈니스 매력도(투자포인트)

1. 우호적인 영업환경에 따른 매출증대 지속

복강경수술은 기존 개복 수술에 비해 환자의 통증이 덜하고, 수술 부작용이 적으며 빠른 환자의 회복 속도 등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수술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복강경 수술 기구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세종메디칼은 투관침만 100여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제품이 일회용으로 개발된 만큼 꾸준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2. 해외 매출처 확대를 통한 포트폴리오 다변화

세종메디칼은 국내 GMP, 미국 FDA, 유럽 CE, 일본 JFDA 인증을 통해 기존 국내에 국한되어 있었던 사업 영역을 미국, 일본 등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 FDA 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다국적 의료기기 기업향 OEM 매출액이 올해 하반기부터 가시화될 전망이다.

3. 로봇시장 진출로 추가성장동력 확보

글로벌 로봇수술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동사는 일회용/로봇용 Trocar 공급을 통한 지속적인 매출 발생도 전망된다.

2017년 기준 PER 22.8~28.9배

공모희망가는 2017년 기준(EPS 474원) PER 22.8 ~ 28.9배로 국내 유사 의료기기 업체(세운메디칼, 덴티움, 휴메딕스 등) 평균 PER 30.5배와 유사한 수준이다. 동사는 제품 기획에서 개발 및 공급에 이르는 일괄 생산체제 구축을 통해 평균 영업이익률 30%로 높은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고, 자회사 세종바이오메드(2016년 설립)를 통해 진단사업영역도 넓히고 있는 만큼 신규사업 성과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실적 추이

(단위: 십억원, %)

	15	16	17
매출액	11.5	12.8	14.6
매출총이익	7.0	8.1	9.9
영업이익	2.6	3.7	5.2
영업이익률	*22.6*	*28.9*	*35.6*
당기순이익	1.9	3.2	3.2
순이익률	*16.5*	*25.0*	*21.9*

자료: 세종메디칼, 하나금융투자

IPO Plan

공모주식수	2,030,000주
공모예정가	10,800원~13,700원
총 공모예정금액	219억원~278억원
예상 시가총액	732억원~929억원
상장예정주식수	6,777,741주
수요 예측일	2018년 5월 14일~15일
상장 예정일	2018년 5월 29일

공모 후 주주구성

주주명	주식수(주)	비중(%)	보호예수기간
최대주주 등	4,591,054	67.7	상장후 6개월
벤처금융	18,000	0.3	상장후 6개월
우리사주조합	60,900	0.9	상장후 3개월
상장주선인	24,774	0.4	
기타주주	53,013	0.8	
공모주주	2,030,000	30.0	
합계	6,777,741	100.0	

자료: 세종메디칼, 하나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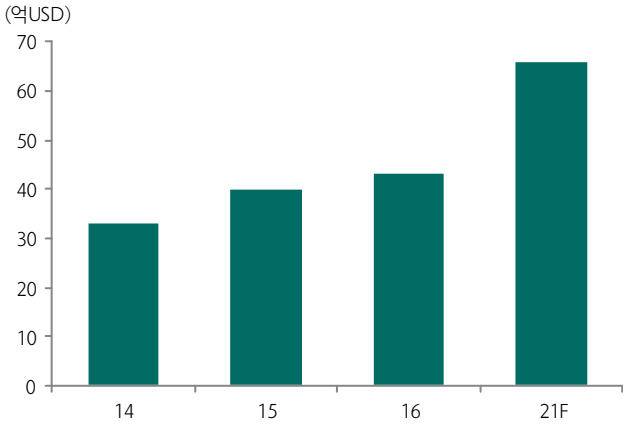
Peer 그룹 비교(Table)

	세운메디칼	휴젤	덴티움	휴메딕스
2017년 순이익(십억원)	9.2	72.8	30.1	11.5
기준주가(원)	4,954	593,100	75,600	43,100
시가총액(십억원)	217.0	2,584.9	836.8	402.9
PER(배)	23.6	35.5	27.8	34.9
평균PER(배)	30.5			

자료: 하나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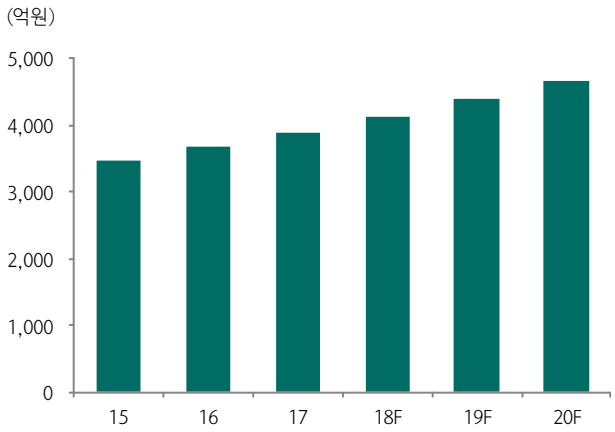
[IPO Note] 세종메디칼(258830.KQ)

글로벌 복강경 수술 시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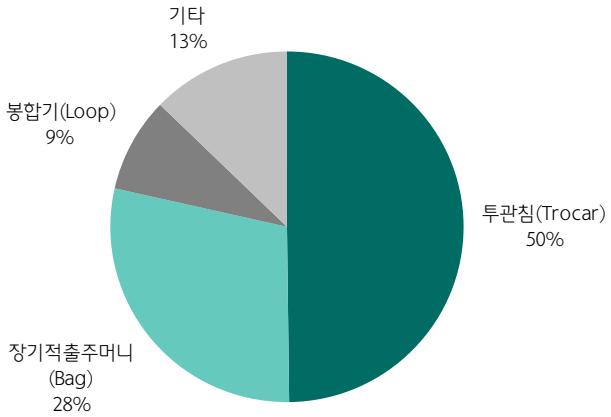
자료: 세종메디칼, 하나금융투자

국내 치료 수술기기 시장규모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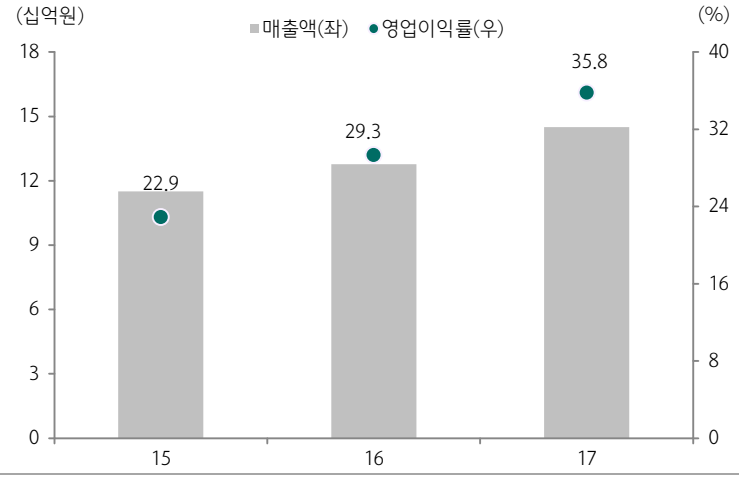
자료: 세종메디칼, 하나금융투자

제품별 매출비중(2017년 기준)



자료: 세종메디칼, 하나금융투자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자료: 세종메디칼, 하나금융투자

[IPO Note] 세종메디칼(258830.KQ)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안주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18년 5월 14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안주원)는 2018년 5월 14일 현재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 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